

장소 상실의 노동 서사와 정동적 소외*

- 『코리안 티처』 속 접경의 증첩을 중심으로

김나현**

1. 접경지대로서의 한국어학당
2. '코리안 티처'와 '코리안 핫 걸' 사이
3. 정동적 노동과 여성
4. 헤테로토피아에서의 앞의 배치
5. 접경의 증첩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0년에 발표된 서수진의 소설 『코리안 티처』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소설은 오늘날 한국어학당의 한국어교원이 겪는 정동적 소외를 잘 보여준다. 세계화의 이념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1990년대 전후 대폭 신설된 한국어학당은 오늘날 까지도 단순한 어학 교육기관 기능을 넘어 문화, 관습, 제도의 접경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이 수행하는 노동은 정동적이며 다층적이다.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수진의 소설은 한국어학당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한국어교원의 정동적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린 텍스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 이 논문은 2023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용인대학교 용오름대학 조교수

1장에서는 접경지대로서의 한국어학당의 위상을 살피고, 2장에서는 부유하는 정체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국어학당 교사와 학생의 존재 방식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이 소설이 폭로하는 고학력 비정규직 여성 노동의 현실을 따라가보고, 4장에서는 푸코가 말한 '헤테로토피아'로서의 한국어학당 속 권력과 앞의 배치를 고찰하고 장소 상실 노동 서사의 의미를 짚어본다. 마지막 5장에서는 중첩된 경계 위 노동자 형상을 통해 경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본고는 다양한 분할선이 지나가는 장소이자 그 분할선을 구성하는 장소로서의 소설 속 한국어학당 공간을 읽어냄으로써 오늘날의 문학적 상상력을 점검하고 한국 사회 문제의 일면을 고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코리안 티처』, 서수진,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원, 정동적 노동, 정동 소외, 접경지대, 세계화)

1. 접경지대로서의 한국어학당

앤더슨의 통찰이 일찍이 강조했듯이 언어는 민족적 형상을 주조함으로써 국민국가를 상상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기제인 바¹⁾ 한국어는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상징하는 핵심소로 작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화라는 과업 앞에서 경계를 강화하는 문턱으로 작동했다. 그런 만큼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와 고도화는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고, 1990년대를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여러 대학의 부설 한국어학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계화'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시작된 것은

1)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서지원 역, 길, 2018.

1959년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에서 한국어학당을 설립하고 문교부에서 이를 공인하면서부터인데,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1969년 서울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개관 이후 더 이상의 한국어학당 설립이 없다가, 1986년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 1988년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1989년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 한국어교육원, 1990년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교육원 등이 잇따라 설립된 것이다.²⁾³⁾ 이는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구체적으로 감각되기 시작한 '세계화'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1의 국정 과제가 되었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⁴⁾ 이때 우리 기업이나 국민의 해외 진출만큼 중요한 것이 해외 인적 자원의 국내 유입이었고, 유학생 및 근로자를 유치하는 첫 단계는 언어 교육이었다. 따라서 각 대학 부설기관으로서의 한국어학당은 세계화를 실천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했다.

어느덧 5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갖게 된 한국어학당은 세계화, 국제화, 한류, 다문화사회, 이주노동자, K-컬처 등 각 시대마다 담론장에서 부상하는 여러 키워드와 조응하며 성장해 왔다. 대체로 한국어학당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단순히 학생들에게 학문 수학을 위한 언어 능력만을 가르친다기보다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 또한 직·

2) 김용현,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분석」, 『이중언어학』 제80호, 이중언어학회, 2020, 39쪽.

3) 각 대학마다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설 기관의 명칭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이하 본고에서는 '한국어학당'으로 통칭하겠다.

4) 예컨대 다음과 같은 보도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내각의 제1과제는 세계화의 본격 추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대한 비전, 분명한 목표, 과감한 실천이 중요하며 정부는 물론 온국민이 세계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세계화가 제1과제〉, 『경향신문』, 1994.12.25.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는 완충 작용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학당은 문화의 '접경지대'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접경지대란 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즉 국경지대를 이르는 용어이지만 언어·문화·관습·제도의 경계가 맞닿아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의미에서 한국어학당 역시 문화의 접경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하겠다. “지도 위 그저 선으로서가 아닌 공간으로서의 국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은 국경의 투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새로운 조건, 제도, 그리고 행위자로서의 집중을 요구한다. 요컨대 국경은 갖가지 다양한 관문과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을 지닌 필터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⁵⁾ 정치적인 경계인 국경지대가 상대적으로 명료한 물리적 분할 공간인 데에 반해, 문화적 경계지대는 쉽없이 밀려오고 흘러나가는 물질로만 존재하는 해안선처럼, 그려지는 동시에 지워지는 유동적 공간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어학당은 정치적 경계로서의 국경을 수호하는 실정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VISA) 발급 제도와 구체적으로 얽혀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사람은 대학부설어학원연수비자(D-4-1)를 받을 수 있다.⁶⁾ 6개월의 체류만이 허락되는 단기비지만 한국어학당 수업을 듣는 것 외에 한시적 허가 하에 시간제 취업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기비자는 다양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보게 하는 출입문 역할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여러 대학들은 부설 한국어학당에 할당된 유학생 비자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외국인 학생 유치 전략도 세우고 있다.

5) 알렉산더 디너·조슈아 헤이건, 『경계들』, 임경화 외 역, 소명출판, 2022, 114쪽.

6) 법제처 법령 정보 '사증 발급' 항목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2&cciNo=1&cnpClsNo=1> (2024.3.1. 검색)

요컨대 한국어학당은 기초적인 생활 한국어에서부터 학문 언어로서의 한국어까지 언어 능력을 가르치는 장소이며, 이질적인 생활 양식과 문화적 관습이 충돌하며 조정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인구 급감 시대에 다양한 인적 자원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가 수행되는 전략의 장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국민성(nationhood)을 담보하는 국민국가의 시민권과 글로벌한 시민권 사이의 통합과 갈등이 공존한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접경지대는 이를 둘러싼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몫의 분배로서의 '정치적인 것'이 생성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충돌하며 새로운 법의 설립이 계속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같은 접경지대로서의 한국어학당의 행위능력은 '한국어교원'에 의해 수행된다. 한국어교원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 2005년부터 문광부 시행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가 생겨서 자격의 등급과 기준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준거하고 있다. 한국어학당을 접경지대로 보았을 때, 한국어교원이 감당하는 노동의 다층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들이 만나야 하는 학생들은 한국인이 아니며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부정의 방식'으로 정의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로 수렴되는 공통의 특징을 찾기 어렵다. 한국어교원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를 차이를 온몸으로 마주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들이 가르쳐야 하는 '지식의 대상'인 한국어가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도 난관이 있다. 아직 소통의 도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정규노동자라는 사회적 지위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한국어교원

관련 정책 연구나 교수법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지만, 문화접경시대 로서의 한국어학당의 위상이나 한국어교원의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유아보육교사, 특수학급교사, 중등교사 등 상이한 단위 기관에 속한 교사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어교원의 노동에 대한 접근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다. 한국어교원의 이직 원인을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정노동 문제로 확인한 연구는 있으나,⁷⁾ 담론적 층위에서의 한국어학당 및 한국어교원의 특수성을 조명한 것은 아니다. 이는 연구의 구멍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담론적 재현의 구멍을 우선 시사한다 하겠다. 한국어교원 노동을 둘러싼 여러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비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인 서수진의 소설 『코리안 티처』는 한국어학당이라는 장소의 특수성과 한국어교원의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린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은 어학당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감추려고 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문학상 수상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진실 또한 담지하고 있다. 특히 근 30년을 관통하며 가속화된 세계화의 급물살이 결국 경계를 가로지르는 복합적 위계화의 과정이었음에 주목한다면, 국경을 넘는 자들을 환대하는 대표적 장소라 할 수 있는 한국어학당은 단순한 교육의 장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된다. 국경을 넘는 이주와 매개된 노동의 여성화에 주목한 바 있는 소영현은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흐름이 교차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주와 이동, 탈국경의 움직임 없

7) 윤지원·박미라·제남주, 「한국어교원의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감정노동, 심리적 소진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집』 제45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2.

는 시공간을 상상하기 어렵다”⁸⁾고 단언한다. 이때 다양한 경계를 가로지르며 발생하는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배치되기 마련인데, 이 소설 속 한국어교원이 수행하는 정동적 노동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즉, 불가역적으로 작동하는 세계화 가운데 경계가 충돌하는 장소로서 한국어학당을 정위하고 이 소설을 읽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는 한 편의 노동소설로 읽어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포함하여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⁹⁾에 따른 노동의 위계화 문제는 2010년대 노동소설을 분석한 정고은의 연구가 상세히 보여준 바 있다. “신자유주의 유연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할과 노-노 갈등, 파업, 정리해고, 노동자 죽음, 노동과 연계된 가치·정체성 해체와 인간성 파괴가 어떻게 서사화되고 있는지”⁹⁾를 다룬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소설은 쌍용자동차 구조조정⁹⁾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매개된 노동자 투쟁을 다룬 텍스트들이었지만, 이제는 노동자의 죽음이나 투쟁을 직접 다룬 소설이 아니더라도 노동을 끊임없이 위계화하는 신자유주의의 가치는 이미 체질화되어 다양한 소설 텍스트에서 일종의 ‘기본값’으로 작동한다. 한국어교원의 노동 현실을 다룬 이 소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상은 왜 노동 투쟁으로 다시 독해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서수진이 그려낸 한국어교원 노동의 핵심은 정동(affect)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동하고 정동되는 힘으로서의 ‘정동’은 일상적인 ‘감정’과 다르다. 정동은 문턱을 이행하는 신체의 경험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전부 환원되지 않는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것

8) 소영현, 「징후로서의 여성/혐오와 디아스포라 젠더의 기하학」, 『대중서사연구』 제23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7, 92쪽.

9) 정고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2010년대 이후 한국소설에서의 ‘노동’ 재현」, 『상허학보』 제68호, 상허학회, 2023, 536쪽.

의 즉접”¹⁰⁾이다.¹¹⁾ 사라 아메드의 정동 논의를 경유하며 비전향장기수의 몸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살핀 이소영의 논의,¹²⁾ ‘정동 경제’라는 프레임으로 드라마 〈비프〉와 영화 〈엘리멘탈〉을 독해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행위자성과 이방인 형상을 설명한 권두현의 논의,¹³⁾ 산업화시기 ‘버스 안내양’의 수기와 시를 분석하며 안내양의 신체와 맞부딪치는 정동 정치를 논한 김나현의 논의¹⁴⁾ 등은, 정동 개념을 경유했을 때 경계에 놓인 신체를 둘러싼 문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본고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관점을 이어받아 접경지대 노동자로서의 한국어교원이 겪고 있는 정동적 노동¹⁵⁾ 문제를 『코리안 티치』를 경유해 짚어보겠다. 한국어학당을 1990년대 국가적 과제로서의 세계화 열망에서부터 오늘날의 글로벌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어젠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담론장과 교섭하는 접경지대로 보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한국어학

10)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 조성훈 역, 갈무리, 2018, 293쪽.

11) 재현 너머를 지향하는 연구방법으로서의 ‘정동’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강석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조강석, 「정동적 문학 읽기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7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3, 307-328쪽. 또한 ‘정동적 전회’ 이후 어펙트 연구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권명아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권명아, 「보편적 어펙트 연구 비판과 젠더·어펙트 연구」, 『사이間SAI』 제3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51-182쪽.

12) 이소영, 「비전향장기수와 ‘감힌 몸’의 삶, 그리고 정동」, 『인문논총』 제81권 1호, 인문학연구원, 2024, 67-104쪽.

13) 권두현, 「아시아 아메리칸의 분노와 사랑: 〈비프〉와 〈엘리멘탈〉, 초국적 감정 산업의 정동 경제」, 『동방학지』 제205호, 국학연구원, 2023, 33-61쪽.

14) 줄고, 「모빌리티 노동의 정동- 도시 모빌리티와 1970~80년대 ‘버스 안내양’의 정동」, 『사이間SAI』 제3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11-149쪽.

15) ‘정동적 노동’(affective labor)은 마이클 하트의 용어이다. ‘정동적 노동’은 지식이나 서비스 같은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의미에서 ‘비물질적 노동’이며, 사람과의 만남과 관련한 정동들을 창조하고 다루는 것이 이 노동의 본질을 이룬다. - 마이클 하트, 「정동적 노동」, 『비물질노동과 다중』, 질 들뢰즈 외 편저, 서창현 외 역, 갈무리, 2005.

당 및 한국어교원이 다기한 이데올로기의 장 속에서 어떻게 (비)재현되는가의 문제이며, 이 형상에 대한 소설적 재현 역시 그 자체가 하나의 담론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2. ‘코리안 티처’와 ‘코리안 핫 걸’ 사이

제25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인 서수진¹⁶⁾의 장편소설 『코리안 티처』는 ‘H대학 어학당’에서 일하는 네 명의 ‘코리안 티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년이 2개 학기로 구성된 대학과 달리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은 1년이 4개 학기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방학 기간을 활용한 단기 과정이 추가로 개설되기도 하는데, 이 소설은 실제 한국어학당의 학기 구성에 맞추어 각 장의 제목을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그리고 ‘겨울단기’로 붙였다. 1장부터 4장에서는 각각 한국어교원 ‘선이’, ‘미주’, ‘가은’, ‘한희’를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학당 풍경을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으며, 마지막 5장은 짙막한 부기에 해당한다. 각 장의 중심인물들이 휘말리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어교원이 놓인 장소의 접경지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1장은 ‘선이’가 H대학 어학당 신규 강사로 뽑히면서 시작된다. 어학당

16) 『코리안 티처』 작가 소개란에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다”는 문장만이 적혀있다. 이 사실이야말로 서수진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실한 소개말이다. 이민자로서의 경험은 언어에 대한 작가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코리안 티처』 이후 발표한 다른 작품들에서도 국경을 포함한 언어 및 문화의 경계 안팎에 대한 사유가 전면화되고 있다. 『코리안 티처』 이후 펴낸 책으로 『유진과 데이브』(2022), 『올리엔더』(2022), 『폴드러시』(2024) 등이 있다.

원장이 봄 학기에 베트남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을 유치해오면서 신규 강사를 대거 채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어학당의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 유학생이 급감하면서 맞이한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한국어학당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처를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려진다. 그러나 이 장면이 보다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사실은 한국어학당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라는 점이며, 이 불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한국어교원이라는 점이다. ‘선이’를 포함한 22명의 신규 강사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화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16)¹⁷⁾ 라는 책임 강사의 무신경한 안내는 그 점을 서늘하게 예고한다. 급히 베트남 특별반 강의실을 마련해야 하는 어학당에서는 대학의 지하 강의실 몇 개에 간이벽을 세우는 방식으로 교실을 확보한다. 컴퓨터도 없는 반쪽짜리 강의실을 배정받은 신규 강사들은, ‘세계화’를 제1의 과제로 꼽았던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30년 전처럼, 구식 카세트를 손에 들고 다니며 강의를 한다. 이 시대착오적이고 임시적인 교실 공간이야말로 신규 강사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상징하는 공간임은 물론이다.

소설 속 ‘선이’가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곤란함은 학생들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다. 선이는 출석부에 있는 이름 ‘Nguyễn Bình Quang’을 ‘우옌 빈 꾸앙’으로, 다시 ‘우옌 빈 쿠앙’으로, 그리고 다시 ‘응우옌 빈 꺽’으로 표기해보지만, 베트남어 표기 세칙에 따라 이렇게 써보아도 이것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발음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고 “원래 이름에서 너무 멀어져버린 것 같았다”(26)는 생각에 사로잡힌

17) 서수진, 『코리안 터치』, 한겨레출판, 2020, 16쪽. 이하 이 소설에서의 본문 내 짧은 인용은 괄호 표시로 쪽수만 명기한다.

다. 그래서 선이는 차라리 학생들에게 유미, 진우, 은아, 철민 같은 한국어 이름을 지어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나중에 나오는 서술에 따르면 이 이름의 실제 발음은 ‘판’에 가깝다.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부터가 힘들다는 사실은 한국어학당에 놓인 주체들의 허약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함축한다. 이름이란 자신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이름의 훼손은 ‘나’의 정체성 훼손을 상징하므로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 우리는 일종의 수치심을 느낀다. 이름을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어나 베트남어 등 특정한 언어를 할 줄 몰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 호명은 ‘의자에 앉으세요’나 ‘오늘 기분이 어떨까요?’ 등 구체적 의사 전달이나 감정 교환과 같은 의미화된 의사소통 행위 이전에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호명은 주체로서의 상대방을 인지하고 소통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제2의 이름인 별명은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회적 이름으로, 호명을 둘러싼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권력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소설은 선이가 가졌던 별명의 역사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때의 별명 ‘2단지’는 그 무렵 어렵פות이 알게 된 부동산 자본의 위계를 보여주는 이름이며, 중학교 때 별명 ‘씨니텐’, ‘찐다들’, ‘초딩들’은 사춘기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인정욕구를, 고등학교 때의 별명 ‘1번’은 매사 고개를 떨구는 선이의 소극적 성격을 드러내 준다. 대학교 때 다닌 영어학원에서는 밝은 ‘에이미’가 되고 싶었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제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석사를 마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닌 공시학원에서는 아주 가끔 ‘저기요’로 불릴 뿐이었다. 그런 선이에게 H대학 한국어학당에서 보낸 최종 합격 문자 속 ‘김선이 강사님’이라는 호칭은 처음으로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해준 사회적 이름이었다.

그래서 선이는 소설의 첫 장면에서 “캠퍼스를 걸을 때 자신이 학생이 아니라 강사의 신분으로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9)다는 마음에 “채용 합격 문자를 받고 산 80만원짜리 카멜색 핸드메이드 코트”(9)를 입고 출근한다. 그리고 교수와 강사 사이에 작동하는 일종의 위계를 본능적으로 환기하면서도 “선이의 학생들도 선이를 교수님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10)고 생각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어학당 정규 강사’라는 선이의 직함은 대학원 진학과 공무원 시험 준비를 거치며 장기간 지속된 자신의 소위 ‘취준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주며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공식화해준 이름이다.

선이는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어학당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필요한 것”(23)임을 알게 되고 이들에게 한국어 공부는 부당한 고용주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름을 바르게 호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호명의 실패로 귀결된다.

선이가 베트남 특별반에서 얻게 된 이름은 ‘코리안 티처’가 아니라 ‘코리안 핫 걸’이다. 선이는 수강생 ‘판’의 인스타그램에 화이트보드에 판서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올라간 걸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 예뵤요”라는 설명 아래에 붙은 해시태그가 “#KoreanHotGirl”이었던 것이다. 선이가 처음에 그 학생의 이름을 ‘쿠양’이라고 잘못 불렀던 것의 거울상처럼, 판은 선이를 ‘코리안 핫 걸’로 잘못 호명한다. 자신의 자신 아래에 달린 수준 이하의 영어 댓글들과 이 해시태그를 단 다른 게시물들에 속옷만 걸친 여자들이 사진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한 선이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을 느낀다.

이 밖에도 소설은 각자의 명칭으로 상징되는 인물의 정체성이 어떤 방

식으로 오해되거나 기각되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일례로 4장의 초점 화자 ‘한희’의 남편 ‘제이콥’은 영어유치원 교사로 영어유치원의 임금 체불 및 폐업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는다. 영국에서 건너온 ‘원어민 선생님’에서부터 노동청 근로감독관 앞에 선 ‘임금 체불 피해자’로 신원이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도 임금 체불 가해자인 원장은 제이콥을 온전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차가운 복도에서 한희와 제이콥은 원장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들어야 했고, 그들 셋을 합친 것보다 더 삶이 고된 이들에 대해 들어야 했다. 청소부는 집세가 밀렸고, 학원버스 운전기사는 자식들 학원을 모두 끊었다. 한희와 제이콥은 그보다 나았다. 그건 진실이었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놓인 진실이었다. 한희와 제이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이었는데, 이제 원장은 피해자의 자리마저 빼앗고 있었다.¹⁸⁾

원장은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했던 다른 노동자들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며 ‘불행의 순서’를 만들어 제이콥을 설득한다. 결국 제이콥은 체불임금 중 일부에 불과한 소액체당금을 받는 쪽을 선택하고 노동청 감독관이 만들어 준 차용증과 고소취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그러나 뒤이어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난 변호사를 통해 노동청의 안내가 엉터리였음을 알게 된다. 한희는 소송 위임장을 내미는 변호사의 손에 “한글로 제이콥이라고 새긴 막도장”(252)을 전달한다.

영국에서 온 백인 남성 원어민 선생님 ‘Jacob’의 이름이 막도장에 새겨진 ‘제이콥’으로 옮겨오는 과정은, 한국어학당 정규 강사로서의 ‘코리안 티처’라는 이름과 욕망의 타자로서의 ‘코리안 핫 걸’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모

18) 위의 책, 243쪽.

호한 정체성으로 부유하는 선이의 예처럼, 경계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겪는 지난한 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이름’이란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정체성 위에 사후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명 행위 자체가 정체성을 구성해내는 행위라는 점이 일련의 에피소드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3. 정동적 노동과 여성

소설 속 어학당 강사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오늘날 한국어학당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학당에 여성 강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노동의 특성상 특정 성별이 요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 빚어낸 사회적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어학당 강사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연세대 한국어학당 당사들의 노동 투쟁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2019년 한국어강사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 노조인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지부가 설립된 이래 이들은 부당한 노동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시간제 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시간강사로 인정받지 못하며 전임교원이나 직원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임금, 겸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용 통보 형태, 남녀차별 등에 의해 고충을 겪고 있음을 소리쳤다.¹⁹⁾

『코리안 티처』에서도 젠더화된 한국어 강사의 노동 현실이 잘 드러난

19)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왜 분필 대신 팻말을 들었나>, 『연세춘추』, 2021.11.9.

다. 애초에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중층화된 오래 위계 안에 배치되어 왔다. 테뉴어 정교수와 비정규직 시간강사 사이에는 개인의 능력 차로만 환원되기에는 불공정해보이는 복지 격차가 있다. 2019년 8월부터는 ‘시간강사법’이 도입되면서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대학 당국은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비정년트랙교수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가며 노동의 지위를 위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학의 부설 기관인 한국어학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강사는 대학 내 교원들의 위계적 지위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비가시적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한층 더 문제적이다. 이들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노동하고 있으나 교원의 지위를 받지 못하며 불안정한 10주 짜리 노동계약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어 강사의 노동은 젠더적 위계 속에 놓임으로써 이중으로 박탈(dispossession)된다. 버틀러와 아타나시오우에 따르면 “박탈은 다른 사람에 의해 누군가가 박탈되는 상태를 결정짓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면서도 선취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상실들”을 아우르면서 “근본적인 의존성과 관계성을 통해 자유주의 주체의 자율적이고도 공고한 자족성에 한계를 가하는 것”이며 “주체에게 가해진 손상, 상처를 주는 호명, 폐쇄, 폐제, 예속의 양식들을 의미”한다.²⁰⁾ 다음 장면을 그 점을 잘 보여준다.

한희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결혼했으니까 한국어 강사를 하지”라고 말했다. 시수를 단축할 때도 기혼 강사들에게는 크게 미안해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남편이 버는데, 뭐.”

20)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응산 역, 자음과모음, 2016, 19-20쪽.

“아기를 키우려면 짧게 일하는 게 더 좋잖아?”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생활비는 남편이 벌고, 아내는 대학에서 일한다는 그럴듯한 명함을 위해 잠깐 나오는 것. 가사와 양육이 주이고, 한국어 강사 일은 서브로 하는 것. 그러나 한회는 단 한 번도 이 일을 서브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이 일을 해서 월세와 공과금을 냈다. 잘리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이 일에 빠를 문을 생각이었다. 한회가 H대에 책임강사로 뽑히기 전, E대에서 일할 때는 전임도 아니면서 전임보다 더 늦게 퇴근한다고 놀림받고는 했다.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

여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돈을 잘 못 버는 못난 남편을 두었다는 증거라는 듯이. 남편이 돈을 잘 번다면 여자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²¹⁾

소설 속 강사들은 서로를,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신의 한국어교육노동을 임시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기혼 강사의 경우는 남편의 주 노동을 보조하는 부차적인 노동자로 주변화되거나, 미혼 강사의 경우 박사과정 공부와 병행하는 임시적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취급된다.

실제로 이들은 개강을 단 며칠 앞두고서야 자신의 고용 형태와 노동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한 학기가 10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지나치게 낮다. 게다가 강사의 대부분이 고학력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모국어 화자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자칫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노동’으로 치부되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강사 일은 ‘남성의 어엿한 노동’에 비해 임시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코리안 티처』에 대한 추천의 말을 남긴 소설가 강영숙도 무엇보다 이 소설이 ‘고학력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에 주목한다. “어학당이라는 장소가 실은 한

21) 서수진, 앞의 책, 205-206쪽.

류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고, 고학력 여성들을 값싼 임금과 대우로 그 장사에 동원하고 있음을 말하는 소설”²²⁾이라는 것이다.

한국어 강사들의 노동이 젠더화된 것은, 한국어학당을 접경지대로 보았을 때 보다 선명하게 진단된다. 글로벌 혹은 세계화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중요해지는 것은 안전을 위한 “순환”²³⁾이다. 여기에는 물론 인구의 순환도 포함된다. 생명관리정치는 인구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이트 키핑’을 통해 통치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관문을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관문을 통과하게 (혹은 통과 못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이야말로 현대사회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이다. 오늘날 글로벌 시민권 역시 촘촘하게 짜인 배타적 네이션 시민권의 경계 제도 하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이상이다. 다시 말해 함부로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을 테러리스트, 불법체류자, 부적격자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모빌리티가 확보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어학당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성취하며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유입 인구를 관리하는 필터로 기능한다.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적 후 비자 말소의 과정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한국어 강사가 언어 격차와 문화 차이로 감당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은 인구의 ‘안전한 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이자 부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접경지대로서의 한국어학당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사회적 네트워크들, 공동체의 형태들, 삶능력(biopower)을 생산”²⁴⁾하는 정동적 노동인 동시에, 사회의 순환을 돕는 일종의 ‘재생산 노동’이라 할 수

22) <추천의 말>, 위의 책, 276쪽.

23)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 역, 난장, 2011.

24) 마이클 하트, 앞의 책, 151쪽.

있다. 이반 일리치가 날카롭게 지적한 바대로, 누군가는 도맡아야만 하는 자질구레한 노동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낸 범주인 마르크스주의적 용어 ‘사회적 재생산’은 ‘그림자 노동’과 뒤섞이면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노동을 노동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일조했다.²⁵⁾ 가시적 생산노동을 뒷받침 해주는 음식 준비나 청소, 양육 등의 비가시적 노동이 가정에서의 ‘그림자 노동’이라면, 한국어학당은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그림자 노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소이다.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하기 전에 거쳐 가는 비가시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림자 단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 강사에게 예측 불가의 정동적 노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코리안 티처’는 소위 ‘K-자부심’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쳐 한국(어)의 세계화의 일선에 선 첨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구의 매끄러운 순환을 위해 뒤처리를 도맡아 하는 젠더화된 재생산 노동자였음을 이 소설은 폭로한다.

4. 헤테로토피아에서의 앓의 배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소설 『코리안 티처』가 그려내는 한국어 강사의 노동은 정당한 사회적 이름을 상실한 상태로 존재하며 젠더화됨으로써 이중으로 박탈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들의 노동은 언어를 포함한 앓의 체계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에서 한층 더 문제적이다. 소설의 2장 ‘여름학기’ 챕터에서 초점 화자 ‘미주’가 한국어 2급 수업을 네 학기째 듣고 있는

25)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노승영 역, 사월의책, 2015, 193쪽.

학생 ‘니카’와 갈등을 빚는 에피소드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벨라루스 국적의 니카는 다른 학생과 달리 거의 완벽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고 있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도 많다. 미주는 니카에게 한국인 여자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며 “저렇게 잘생긴 백인 남자면, 뭐”라고 미주답지 않은 인종차별적인 생각도 잠깐”(97) 한다. 그런데 그런 니카의 글쓰기 과제에는 문제가 있었다. 완벽한 에세이였지만 1급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만을 활용하였고 2급에서 새로 배운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카는 계속 2급에서 유급하여 4학기째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미주는 채점 규정에 따라 니카의 과제물을 0점으로 채점한 뒤 돌려준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니카는 화를 내며 과제물을 교실 바닥에 던진다.

“주우세요.”

미주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를 끌어내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2급의 학생들은 ‘줍다’라는 말을 몰랐다. 미주는 때로 자신이 싸우는 대상이 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텅 빈 공간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기분이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스스로만 우스꽝스러워지는 싸움.²⁶⁾

가장 기초 과정인 1급 한국어만 배운 학생들에게 주우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줍다’라는 단어를 알았다 하더라도 ‘비불규칙 활용’을 이해해서 ‘주우세요’를 ‘줍다’의 의미와 일치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주우세요’라는 명령이 한 번에 전달되지 않는가는 것은 교실의 질서를 통제해야 하는 교사의 권위 역시 한 번에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설 속에서도 미주의 권위는 우스꽝스럽게 몸을 구부려서 종이

26) 서수진, 앞의 책, 101쪽.

를 좁는 일종의 광대 시능을 하고 나서야 간신히 전달된다. 한국어 강사는 자신이 전달해야 하는 ‘지식 자체’인 동시에 ‘지식의 도구’가 되는 언어로부터 언제나 소외된다. 한국어학당 학생과 교사 사이에 놓인 이 번역불가능성은 한국어 강사가 노동으로부터 성취를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감정을 소진시킨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의 한계이므로, 한국어 강사의 세계는 항시적 한계로 구성된 일그러진 세계가 된다.

학습자 입장에서도 출발언어와 도착언어 모두가 미지의 언어인 불완전한 번역의 장에 던져진 셈이 된다. 소설은 학습자인 니카의 분노 역시 끝내 제대로 통역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어학당에서 발생하는 무지와 소외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미주가 무의식적으로 ‘잘생긴 백인 남자’로 동일화해버렸던 니카는 사실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미주는 지금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말이 니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공격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예컨대 미주는 니카가 같은 반 친구와 몸으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니카 씨,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말하기 연습 시간에 니카가 ‘어떤 남자/여자를 좋아해요?’라는 질문지를 뽑자 미주는 니카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라고 물었던 것이다.

미주는 니카의 반항이 과제 성적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나타난 행동이라고만 이해했다. 그래서 니카가 눈을 부릅뜨고 미주에게 맞설 때 미주는 속으로 “나는 너와 같은 남자들을 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 그렇게 해서 여자를 겁주는 남자들. 여선생, 여의사, 여직원을 다르게 분류하고 낮잡아보는 남자들. 모든 걸 신체적 힘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남자들.”(124)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했던 것이다. 이는 비극적이게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미주가 자연스레 체득한 폭력적 남성상인데, 미주는 니

카의 존재를 이 카테고리 안에 잘못 놓은 것이다.

미주는 자신이 왜 니카를 남자라고 생각했는지, 왜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짧은 스포츠머리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잘생겼다고 소리를 질러서? 커다란 티셔츠를 입고 다녀서? 농구를 해서? 고작 그런 것들 때문에? (...)

“니카는 화가 났어요.”

마린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미주에게 내밀었다. 휴대폰에는 번역기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고소할 것이다.〉

미주는 복도에 서서 ‘그녀’라는 단어를 오래 바라보았다.²⁷⁾

미주의 이야기가 담긴 이 소설의 두 번째 챕터는 화가 난 니카가 결국 고소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로 끝난다. 이로써 한국어학당의 교사와 학생 간 벌어지는 갈등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언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님이 드러난다. 텅 빈 공간에 대고 휘두르는 무기력한 주먹질의 수행자는 미주 혼자만이 아니었다. 한국어학당 구성원들 사이의 싸움은 서로를 향한 분노와 갈등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앞의 체계와의 싸움인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에는 언제나 편견이 작동하므로 언제나 타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결국 소설은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하지만 한 인간이 편견을 넘어 다른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읽어내는 일보다 더욱 방점을 찍어 읽어내야 할 것은, 한국어학당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유토피아의 정반대인 헤테로토피아로서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27) 위의 책, 128-129쪽.

다. 한국어학당은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이의제기가 펼쳐지는 장소이다. 푸코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유토피아가 있다. 유토피아는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배치이다. 그 배치는 사회의 실제 공간과 직접적인 또는 전도된 유비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회이거나 사회에 반한다. 그러나 어쨌거나 유토피아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모든 문화와 문명에는 사회 제도 그 자체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 현실적인 장소, 실질적인 장소이면서 일종의 반(反) 배치이자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인 장소들이 있다. 그 안에서 실제 배치들, 우리 문화 내부에 있는 온갖 다른 실제 배치들은 재현되는 동시에 이의제기당하고 또 전도된다. 그것은 실제로 위치를 한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다. 이 장소는 그것이 말하고 또 반영하는 온갖 배치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르기에, 나는 그것을 유토피아에 맞서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르려고 한다.²⁸⁾

다소 비유적으로 설명된 개념이긴 하지만, 푸코는 감옥과 병원, 양로원 등을 예로 들며 반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를 서술한다. 요컨대 헤테로토피아는 현실화된 유토피아적 장소로, 한 장소를 둘러싼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감지하게 하는 장소이고, 다른 모든 장소에 대한 이의제기의 장소이며, 배치의 준거들을 되묻게 하는 장소이다.

국제화 시대 이른바 K-컬처의 위상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글로벌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은 유토피아적 청사진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유토피아일 리 없다. “실제 장소를 갖는 배치”는 구성원들의 이질성이 충돌하며 한국어교육원의 정동 소외²⁹⁾가 쉽없이 발생

28)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47쪽.

하고 있는 한국어학당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이다. 이 장소에 집중했을 때, 한편으로는 고학력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로서의 한국어교원의 정동적 노동 문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민과 불법체류자 사이를 줄타기하는 안전 관리 대상으로서의 한국어학당 학생들을 둘러싼 권력과 삶의 배치를, 우리는 목도한다.

한국어학당은 세계화의 청사진이 유감없이 실현되는 유토피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하 위계화된 노동 문제에 대한 저항을 암시하는 디스토피아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곳을 이의제기의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로 보았을 때, 우리는 불가역적인 글로벌화가 낳은 새로운 정동적 노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적 상상력은 더 이상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스토피아적 비판마저 유의미한 함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암울하고 불확실한 현실로부터 탈출구를 모색³⁰⁾하고자 할 때 의미있는 대안을 제공하니 말이다. 앞서 인용한 대로 푸코는 이를 ‘장소 바깥에 있는 장소’라고 표현했으나, 달리 말하자면 이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장소의 없음’ 그 자체를 명시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소설 『코리안 티처』에 재현된 한국어교원의 노동은 겉보기에는 제도적으로 명확히 지칭된 노동의 장소를 갖지만 이 장소는 신자유주의 이후 가속화된 노동 소외의 장소라는 점에서, 장소를 갖지 못하는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며 주관화된 공간이므로 정체성과 고유성의 자리가 되는데, 장소를 상실한 노동이란 곧 의미

29) 아메드는 ‘흥을 깨트리는 페미니스트’, ‘불행한 퀴어들’, ‘우울한 이주자들’ 등을 예로 들며 어떤 정동 공동체의 바깥으로 내몰리는 타자들을 ‘정동 소외자(affect aliens)’라고 명명한 바 있다. -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이론』, 최성희 외 역, 갈무리, 2010, 56-95쪽.

30) 이정옥, 「헤테로토피아적 상상력과 현대사회의 해방과 사랑에 대한 성찰」, 『세계문학 비교연구』 제85집, 세계문학비교학회, 2023, 155쪽.

를 상실하고 소진되기만 하는 주체의 흔적을 보여줄 뿐이다. 이같은 장소 상실의 노동 형상은 새로운 노동 서사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기존의 장소로부터 일상적 배제를 겪는 이주 노동 형상과는 또 다른 방식의 소외를 재현하기 때문이다.

탈국경화의 맥락에서 최근 문학장에 출현하는 새로운 노동자 형상은 대개 이주 노동자 형상이다. 디아스포라 서사와 다문화 서사를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가 재현되는 서사에서는, 이주를 통해 흔들리는 노동자의 정체성과 정주를 향한 이들의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위계구조 하에 배치되는 초국가적 노동자 형상의 특징을 그려낸다. 예컨대 이주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임에 주목해 ‘이주의 가정주부화’를 논했던 소영현의 논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가정주부화는 이주가 단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국가적, 계급적, 인종적 위계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일이자, 이주를 통해 국가-계급-젠더-인종 위계구조가 재편되고 강화되는 과정임을 의미”³¹⁾함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와 정주 사이에서 자신만의 장소를 갖지 못한 채 부유하는 노동자 형상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주의 모빌리티에만 주목하게 되면 명료한 출발점과 도착점을 갖지 않고 부유하는 장소 상실의 주체³²⁾를 감각하기 어려운데, 이 소설은 (유학생 혹은 이주노동자의) 이주 과정에서 요청되는 한국어교원의 돌봄노동 문제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는 이주 노동의 여성화에 더해, 일상화된 탈국경 속에 배치된 장소 상실의 노동 또한 여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31) 소영현, 앞의 글, 96쪽.

32) ‘모빌리티의 주체’ 반대항에 놓인다는 의미에서 이를 ‘임모빌리티의 주체’라 명명할 수도 있겠다. 임모빌리티의 주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나현, 「장치로서의 (임)모빌리티와 그 재현」, 『대중서사연구』 제27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1, 195-228쪽.

예컨대 조선족 노동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금희의 소설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바 있듯 이주노동자의 삶은 이동의 삶 혹은 노마드의 삶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코리안 티처’의 삶은 비가시화되는 장소 상실의 삶이라 말할 수 있겠다. 즉, 이동하는 노동자의 뒤에 그 이동을 돌보는 노동자가 있다는 점을, 그리고 이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며 한층 더 여성화 혹은 가정주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서수진의 소설은 들추어낸다. 자신의 빈곤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되물을 새도 없이 중단 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 말고는 출구를 찾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신자유주의 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형상으로 말이다.

5. 접경의 중첩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세계화가 낳은 노동의 새로운 형태를 목도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공통적으로 자본의 필요로부터 태어난 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윤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본의 ‘의지’가 전지구적 공간 구조를 재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공간 개념의 상대화’ 이것이 단순화시킨 ‘세계화’이다.”³³⁾ 이로써 세계화는 자본의 모빌리티를 촉진했고, 이는 노동의 모빌리티로 발현되는 것이었다. 이때 출현하게 되는 노동자 형상이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 노동자다. 이들은 고 모빌리티 시대의 산물이자 고 모빌리티의 행위자이다. 하지만 서수진의 소설을 경유해 본고가 주목한 노동자 형상은, 초국적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전제했

33) 김춘수, 『이주와 노동』, 한국학술정보, 2022, 23쪽.

을 때에만 출현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은 어떤 출발점이나 도착 점도 갖지 않는, 다시 말해 공간 개념이나 장소 혹은 모빌리티 능력을 부여 받지 않는 주체 형상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이 구체화되면서 가시화된 노동의 모빌리티 뒷면에서 생겨난 일종의 부산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계의 중첩 속에서 장소를 상실한 노동자의 정동 소외는 새로운 노동 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서수진의 소설 『코리안 티처』는 한국어학당이 다양한 사회적 경계가 교차하는 장이 된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묘파해낸다. 일차적으로는 언어의 경계가 교차한다. 한국어학당은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화가 기약 없이 지연된 채 서로 다른 언어가 충돌하는 경계의 장이다.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라는 점에서 문화적 경계가 교차한다.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 사이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인접한 아시아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문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데, 언어 소통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문화적 갈등이다 보니 원만히 조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제도와 법의 경계도 교차한다. 국민국가 경계에 한정된 내이션 시민권이라는 현실과 글로벌 시민권이라는 이상 사이에 놓여 있는 출입국관리법이라는 제도는 일차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수행되지만, 한국어학당은 단기어학비자 발급의 창구가 됨으로써 현대의 장소인 동시에 잠재적 불법체류자의 출입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한국어학당의 경영 전략과 일정 수 이상의 재학생을 관리해야만 하는 대학 당국의 전략이 공묘하면서, 어학당은 법의 충돌과 공백이 출현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여기에 한국어교원이 감당하는 정동적 노동과 소외가 덧붙으면

서 젠더 위계의 경계선이 추가로 놓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학당 강사의 노동이 처한 사회적 불안정성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노동은 젠더화 되기 때문이다. 한국어학당 안에서 벌어지는 남녀차별,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사이의 위계, 그리고 여기에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원 사이의 위계적 경계도 중첩되어, 한국어교원의 장소 상실 노동은 중층적 소외를 겪게 된다.

‘코리안 티처’는 세계화의 부산물로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자신의 신체로 겪어내는 경계의 장애 놓인 주체 형상을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 접경지대는 그 사회의 제도 및 권력 구조가 어떻게 (탈)구성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인데, 심지어 다양한 경계의 교차가 일어나는 접경의 중첩지대로서의 한국어학당은 헤테로토피아적 앞의 배치로 인한 항시적 분쟁상태의 장소가 된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등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이른바 K-신화가 축포를 쏘아올리는 동안, 중첩된 경계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정동적 노동을 하고 있는 ‘코리안 티처’의 형상이야말로 K-신화의 민낯임을 역설한다.

경계는 인간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구성해내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인 동시에, “기회와 불안의 영역, 접촉과 갈등의 구역, 협력과 경쟁의 현장, 양면적인 정체성과 다름에 대한 공격적인 주장이 발생하는 장소”³⁴⁾라는 점에서 ‘타자’를 발견하는 정치적인 장소가 된다. 그리고 언어의 경계에 더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권력의 경계를 보여주는 한국어학당은 이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적 장소가 된다.

이러한 문학적 재현물에 나타난 중첩된 경계 위 노동자 형상은 경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앞의

34) 알렉산더 디너·조슈아 헤이건, 앞의 책, 41-42쪽.

배치를 돌아보게 하고 윤리적 공백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심과 주변, 정주와 이주, 표준과 비표준 등 다양한 분할선이 지나는 장이자 그 분할선을 구성해내는 장으로서의 『코리안 티처』의 한국어학당을 읽어냄으로써 동시대 문학의 상상력을 점검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고찰했다는 점에 본고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서수진, 『코리안 티처』, 한겨레출판, 2020.

2. 논문과 단행본

권두현, 「아시아 아메리칸의 분노와 사랑: 〈비프〉와 〈엘리멘탈〉, 초국적 감정 산업의 정동 경제」, 『동방학지』 제205호, 국학연구원, 2023, 33-61쪽.

권명아, 「보편적 어펙트 연구 비판과 젠더·어펙트 연구」, 『사이間SAI』 제3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51-182쪽.

김나현, 「장치로서의 (임)모빌리티와 그 재현」, 『대중서사연구』 제27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1, 195-228쪽.

_____, 「모빌리티 노동의 정동- 도시 모빌리티와 1970~80년대 '버스 안내양'의 정동」, 『사이間SAI』 제33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11-149쪽.

김용현,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분석」, 『이중언어학』 제80호, 이중언어학회, 2020, 31-58쪽.

김춘수, 『이주와 노동』, 한국학술정보, 2022.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트르망역, 난장, 2011.

_____,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서지원 역, 길, 2018.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펠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이론』, 최성희 외 역, 갈무리, 2010.

소영현, 「징후로서의 여성/혐오와 디아스포라 젠더의 기하학」, 『대중서사연구』 제23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7, 85-117쪽.

알렉산더 디너·조슈아 헤이건, 『경계들』, 임경화 외 역, 소명출판, 2022.

윤지원·박미라·제남주, 「한국어교원의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감정노동, 심리적 조신 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제45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2, 167-206쪽.

- 이반 일리치, 『그림자 노동』, 노승영 역, 사월의책, 2015.
- 이소영, 「비전향장기수와 '갇힌 몸'의 삶, 그리고 정동」, 『인문논총』 제81권 1호, 인문학연구원, 2024, 67-104쪽.
- 이정옥, 「헤테로토피아적 상상력과 현대사회의 해방과 사랑에 대한 성찰」, 『세계문학 비교연구』 제85호, 세계문학비교학회, 2023, 153-185쪽.
- 정고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2010년대 이후 한국소설에서의 '노동' 재현」, 『상허학보』 제68호, 상허학회, 2023, 501-543쪽.
- 조강석, 「정동적 문학 읽기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7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3, 307-328쪽.
-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박탈: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의 수행성에 관한 대화』, 김응산 역, 자음과모음, 2016.
- 질 들뢰즈 외,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창현 외 역, 갈무리, 2005.

Abstract

Labor-narrative of Placelessness and Affective Alienation - Focusing on the Overlapping of Borders in *Korean Teacher* -

Kim, Nahyun(Yongi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affective labor in Seo Su-jin's novel *Korean Teacher* published in 2020. This novel illustrates the affective alienation of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teachers in KLI(Korean Language Institute). As a place of education that embodies the ideology of globalization, KLI, which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n large numbers around 1990, continue to serve as a borderland of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customs, and institutions. Therefore, the labor of KSL teachers is affective and multi-layered, as they must teach Korean while facing the various differences that arise in this place. Seo's novel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first text to explore the specificity of the KLI and the affective labor issued of KSL teachers deeply.

Chapter 1 examines the status of the KLI as a borderland, and Chapter 2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KLI exist as floating identities. Chapter 3 traces the reality of highly educated, irregular female workers that the novel exposes, and Chapter 4 examines the deployment of power and knowledge in the KLI as the Foucauldian 'heterotopia' and points out the implications of the narrative of the labor of placelessness. Finally, Chapter 5 shows that borders are socially constructed through the figure of the worker on the overlapping borders. This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imagination of contemporary literature by reading the place of the novel as a place where various dividing lines pass and as a place that constitutes those dividing lines, and examines one aspect of today's Korean social problems.

194 대중서사연구 제30권 2호

(Keywords: *Korean Teacher*, Seo Soo-jin, KLI(Korean Language Institute),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Teacher, Affective Labor, Affect
Alien, Borderland, globalization

■ 논문투고일 : 2024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 : 2024년 6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4년 6월 18일